연암집 읽기 제2강 강의안

제2강 : 거처를 보면 주인을 안다

1. 신천옹(信天翁)의 거처(담연정기澹然亭記) 王元素

- 居移氣 養移體(孟子)
- 里仁爲美(논어)
- 五柳先生傳, 大人先生傳, 大隱
- 君子之交 湛若水 小人之交 甘若醴(莊子)
- 양산보(梁山甫, 1503-1557)의 소쇄원(瀟灑園) : 대문없는 집, 야트막한 담, 징검다리 담, 대숲, 제월당(霽月堂)과 광풍각(光風閣)

*15세 때부터 조광조(趙光祖)에게 수학. 1519년 17세때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남.

*'瀟灑', '蕭洒'는 중국 남제의 문인 공치규(孔稚珪, 447~501)가 쓴 <북산이문(北山移文)>의 '소쇄출진지상(蕭洒出塵之想)'에서 유래. <북산이문>은 공치규가 종산(鍾山)에 은거하다 출사한 뒤 다시 돌아오려는 주옹(周顒)에게 경고한 글

- 가짜 은자들 : 한명회(韓明澮)의 狎鷗亭과 南袞의 大隱岩 : <대은암창수시서(大隱岩唱酬詩序(南袞·沈貞·洪景舟:己卯士禍)>
- 大隱, 朝隱, 市隱, 中隱
- 담연정은 대원군 嗣孫들의 거처인 도정궁(都正宮)의 부속 건물

澹然亭記

今判敦寧府事李公(李澧)이 治小亭于居第之西하고 而鑿池亭下하야 穿墻引泉而注之하고 墻之南에 有石壁長丈餘어늘 有松老于壁之罅호되 蟠其榦而偃其柯하야 蔭滿一庭이라 公日與賓客逍遙亭中하고 琴奕自適하니 蕭閒夷曠이 殆若忘物我而齊得失이라 於是乎名其亭曰澹然이라하고 屬趾源

爲文而記之일새 趾源復于公曰

지금 판돈녕부사 이공이 거처의 서쪽에 작은 정자를 짓고 정자 아래에 못을 파서 담을 뚫고 샘을 끌어들여 물을 댔다. 담장 남쪽에 길이 1장 남짓 되는 석벽이 있고 소나무 한 그루가 벽 틈에서 늙어 가고 있는데 그 줄기가 얽히고설키며 가지가 한쪽으로 늘어져 그늘이 온 뜰을 가득 채우고 있다.

공이 날마다 빈객들과 정자에서 소요하고 거문고를 타고 바둑을 두면서 스스로 흡족해 하니 맑고 한가하고 평온하고 훤함이 거의 남과 나의 경계를 잊어버리고 득실을 나란히 보는 듯하였다. 이 때에 그 정자의 이름을 '담연(澹然)'이라 하고, 나에게 부탁하여 글을 지어 기록하게 하기에 지원이 공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潢溝瀦澤之間에 有食魚之鳥하니 其名曰淘河라 唼淤泥而蒐蘋荇하야 惟魚之是求하야 羽毛趾吻이 蒙穢濁而不耻하고 遑遑焉若有遺失而索之者然이나 竟日而不得一魚하며

웅덩이나 도랑, 늪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새가 있는데 그 이름을 '도하'라 한다. 진흙탕을 쪼아대고 개구리밥과 마름을 헤치며 오직 물고기만을 찾아 깃털과 발과 부리가 더러운 것들을 뒤집어써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허둥대는 모습이 마치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서 찾는 것 같지만 하루가 다가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다.

有靑莊者하니 立於淸冷之淵하야 怡然斂翼하고 不移其處하니 其容若惰하고 其色若忘이라 靜如聽歌하고 止如守戶라가 游魚至前하면 俛而啄之라 故靑莊逸而常飽하고 淘河勞而恒饑라 古之人以此로 喩世之求貴富名利者하고 而號靑莊을 爲信天翁이라하다

한편 청장이라는 새가 있는데 맑고 깨끗한 연못에 서서 편안하게 날개를 접고 자리를 옮기지 않

는데 그 모습이 마치 게으른 듯하고 얼굴은 마치 자신을 잊어버린 듯하다. 고요하기가 마치 노래를 듣는 듯하고 가만히 있기를 마치 문을 지키고 있는 듯하다가 헤엄치던 물고기가 앞에 오면 머리를 숙여 쪼아 잡는다. 그 때문에 청장은 한가하면서도 늘 배부른 것 같고 도하는 수고로우면서도 늘 굶주리는 것 같다. 옛사람들은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부귀와 명리를 추구하는 것에 비유하고 청장을 신천옹(信天翁)이라 불렀다.

噫라 世間萬事 莫不有命存焉하니 則亦奚特徵信於一禽之待魚哉아 然而有愚人焉하야 俟命于巖墻之間하고 而視天曹曹하야 望其雨粟하며 有躁人焉하야 今日行一善事하고 而責命于天하며 明日出一善言하고 而取必於物하면 則天將不勝其勞擾요 而爲善者固亦將惓然退沮矣리라 天固冲潢無朕하야 任其自然이나 四時奉之而不失其序하고 萬物受之而不違其分而已니 天何嘗有意於立信하야 而屑屑然逐物而較挈也哉아

아! 세상의 모든 일에는 천명이 있기 마련이니 어찌 꼭 새 한 마리가 물고기를 기다리는 데서만 이를 확인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서 막 무너질 담장 아래서 천명을 기다리거나 멍한 모습으로 하늘을 보면서 곡식이 쏟아져 내리기를 바라며, 조급한 이들이 있어서 오늘 착한 일 한 가지를 하고서 하늘에 좋은 명을 요구하며 다음날 좋은 말 한 마디를 하고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좋은 말 듣기를 기약하면 하늘이 그 수고와 번거로움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진실로 피곤에 지쳐 물러나고 말 것이다. 하늘은 본디 일정한 모습 없이 텅 비어서 본래 그대로 맡겨 두지만 사계절이 하늘을 받들어 차례를 잃어버리지 않고 만물은 천명을 받아서 자기 분수를 어기지 않을 뿐이다. 하늘이 어찌 믿음을 심어주려는 마음을 두어 자질구레하게 사물을 쫓아다니며 비교하고 재는 일이 있겠는가.

世之論享有全福者에 必先推公이나 然殊不識所以致之者하니 亦有其道하니라 公之職은 乃宗正也라 世嫡相承하야 自其有生之初에 卽貴而富요 其處世也도 以無求之心으로 居不爭之地하니 位躋崇秩이라도 而人不忌嫉하고 恩渥日隆이라도 而物莫與競하야 固無所事乎徵逐勢利어나 夸衒名能이요 惟其恬愼自持하고 息慮忘情하야 不離斯亭이로되 而凡人之日夜營營이라도 乃不一得者를 公則不勞而自至하니 亭之所以名澹然者 非特公之自號也요 世亦以此推之면 不其然乎아

세상에서 복을 온전하게 누린 사람을 꼽을 때는 반드시 먼저 공을 든다. 그러나 끝내 그 복을 이룬 까닭을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는 또한 일정한 도리가 있다. 공의 직책은 바로 종정이다. 대대로 적통을 이어받아 처음 태어날 때부터 바로 부귀하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도 바라는 마음 없이 남과 다투지 않는 지위에 머물렀으니 높은 지위에 올라도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고 임금의 은혜가 날로 높아져도 사람들이 다투지 않아서 본디 권세나 이익을 쫓아다니거나 명성과 능력을 내세우는 일이 없었다. 오직 고요하고 삼가는 도리로 자신을 지키고 생각을 끊고 감정을 잊어서 이 정자를 떠나지 않는데도 보통 사람들이 밤낮으로 도모해서 하나도 얻지 못할 것들을 공은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이르게 하니 정자의 이름을 담연이라 한 것이 단지 공이 스스로 그렇게 부른 것일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또한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그렇다고 여기지 않겠는가.

2. 물에서 솟아 오른 집(백척오동각기百尺梧桐閣記)

- 1791년 안의현감(安義縣監)에 제수, 현청 부근에 하풍죽로당(荷風竹露堂), 연상각(烟湘閣), 공작관(孔雀館), 백척오동각(百尺梧桐閣) 등의 중국식 벽돌 건물을 지음.

*백척오동의 유래 : 당 양거원(楊巨源)의 <贈崔駙馬>

백 척의 오동나무가 고운 누각과 가지런한데, 피리소리 떨어지는 곳에 푸른 구름 나직하네

[百尺梧桐畫閣齊 簫聲落處翠雲低], 청 왕무린(汪懋麟)의 <百尺梧桐閣集>

- 건축물과 자연의 조화

- 안도 다다오(安藤忠雄)의 '물의 절'

- 연암은 담연정을 보고 이공의 인물을 그려냈다. 우리는 백척오동각기를 읽고 연암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百尺梧桐閣記

由正堂西北數十擧武하면 得廢館十有二楹하니 而軒無欄이요 階無甃라 大抵墀堿所築이 皆水磨亂石이로되 疊卵絫碁하야 歲久頹圮하야 滿地磊落하고 傾側膩滑하야 難着履屐하고 草蔓之所縈하야 蛇虺之所蟠이라

정당에서 서북쪽으로 수십 보 걸어가면 버려진 관사 열두 칸짜리가 나오는데 마루에는 난간이 없고 섬돌에는 층계도 없다. 대체로 바닥을 다진 것은 모두 물살에 닳은 돌들로, 달걀을 쌓아두고 바둑돌을 포갠 것 같은데 세월이 오래 되어 기울고 무너져서 바닥에 가득 흩어져 있으니 비뚤비뚤 기울고 미끄러워 발 딛기가 어렵고 풀 섶이 우거져서 뱀들마저 우글거리게 되었다.

遂乃日課僮隷하야 撤砌夷級하고 凡石之圓者는 盡輦去之하고 擇石於崩崖裂岸之間하니 若氷之坼也와 珪之削也와 觚之楞也 爭來効伎呈巧於薑簷之下하고 獒牙互嗑하고

龜背交灼하며 窰皸袈縫하야 以文以完하야 不施繩刃하야도 宛若斧劈하고 沿甃正直하야 有廉有隅러라 於是乎堂有陛而門有庭矣라

마침내 날마다 종들에게 일거리를 주어 돌을 치우고 계단을 고르게 다듬고 돌 가운데서 둥근 것들은 모두 손수레에 실어다 버리고 무너진 벼랑과 쪼개진 비탈에서 돌을 골라왔는데, 마치 얼음이 쪼개진 모양의 돌들과 옥을 깎은 듯한 돌들, 그리고 모난 술잔 모양의 돌들이 다투어 처마 밑에 와서 재주를 뽐내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 같았다. 어떤 것은 개 이빨이 서로 맞물린 듯하고, 어떤 것은 거북 등이 불에 지져져 이리저리 갈라진 듯하며, 어떤 것은 도자기에 생긴 결 같고, 어떤 것은 가사를 꿰맨 것 같아서 문채와 구색이 갖추어져 먹줄을 대거나 칼날로 다듬지 않아도 도끼로 쪼갠 것처럼 움푹하고 섬돌을 따라 반듯하여 각이 지고 모가 났다. 이렇게 해서 당 앞에 층계가 있게 되고 문 안에 뜰이 마련되었다.

復斥其前楹하고 補以脩欄하며 新其塗塈하고 剷除猥雜하야 舘客讌賓하야 以遨以息矣라 百笏量庭에 十弓爲池하야 盛植芙蕖하고 種以魚苗하니 於是乎揭風欞凭月楹하야 俯淸沼하니 而幽敻窈窕하야 衆美畢具矣라

다시 앞쪽의 기둥을 쳐내고 기다란 난간을 보수하며 칠도 새롭게 하고 지저분한 것들을 벗겨 내서 손님들을 재우거나 잔치를 베풀어 놀면서 쉬게 하였다. 100척을 헤아리는 뜰에 10궁의 못을 만들어 연꽃을 가득 심고 물고기 새끼를 풀어 주었다. 이렇게 하고는 들창문을 올려 걸고 달빛 비치는 기둥에 기대 맑은 못을 굽어보니 깊고 아득하며 그윽하고 고요하여 온갖 아름다움이 다 갖추어졌다.

夫宿漿도 換器면 口齒生新하고 陳躅도 殊境하면 心目俱遷일새 士民之來觀者 不覺池之昔無요 閣之舊有하고 而咸謂

斯軒之翼然湧出於池上也라하다 墻外有一樹梧桐하니 高可百尺이러라 濃陰暎檻하고 紫花飄香하면 時有白鷺翹翼停峙하니 雖非鳳凰이나 足稱嘉客이라 遂榜之曰百尺梧桐閣이라하다

무릇 늘 마시던 물도 그릇을 바꾸면 입에 새로운 맛이 느껴지고 묵은 길도 경관이 달라지면 마음과 눈이 함께 옮겨가기 마련이다. 선비들과 백성들로 와서 구경하는 이들이 못은 예전에 없었고 누각만 본디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들 “이 집이 새가 날개를 편 것처럼 못 위로 솟아나온 듯하다.”고 하였다.

담장 밖에 오동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높이가 100척을 헤아릴 만 하였다. 짙은 그늘이 난간에 비치고 자줏빛 꽃이 향기를 날리면 때로 백로가 날갯짓하며 내려앉으니 비록 봉황은 아니지만 족히 아름다운 손님이라 일컬을 만하다. 마침내 현판을 붙이길 백척오동각이라 했다.